

투명성 확보 · 전문성 향상을 위한

행정 회계 멘토링 사업 결과 보고회 11월 2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부]

급속한 사회발전과 함께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기관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불투명하고 취약한 행정 및 회계처리가 사회복지기관들의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올 한해 취약복지기관의 행정 회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 회계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1년여의 활동을 정리하는 결과보고회가 오는 11월 21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개최된다.

행정 회계 멘토링 사업은 행정 회계 능력이 취약한 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를 멘토로 파견하여 조직 운영, 회계 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사회복지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일회성으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이번 사업에 직접 참여한 멘토, 멘티기관,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인사들을 모시고 취약복지기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취약복지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행정 회계 멘토링 사업(공식 명칭 : 취약복지기관의 행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그룹(Mentor-Group)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5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표1〉 주요 사업 내용

일정	세부사업 내용
2월	멘토사업 연구자문단 구성, 16개 지회 사업설명회
3~4월	멘토 87명, 멘티 400기관 선정
5월	취약복지기관에 행정 회계 실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1,500부) 멘토 워크샵 (5월 26~27일, 양지파인리조트) 멘티 집합교육 (경기, 부산, 대전, 광주 4개 권역에서 실시)
6~12월	멘토그룹 멘티기관 파견 활동(멘토링 활동)

〈표2〉 사업흐름도

